

부패한 삶에 던지는 두 글자

윤 성민

수기를 모두 프린트 하니, 생각보다 양이 많고 그 두께도 무척 두꺼웠다. 청렴과 부패에 관한 사연이 이렇게도 많은 걸까? 생각하며 한 편 한 편 모두 읽었다. 솔직히 '굳이 이 모든 걸 다 읽을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과 '그냥 최우수상 과 우수상만 읽고 쓰자'라는 유혹에 처음에는 글을 읽기가 조금 힘들었다. 하지만 모든 수기를 다 읽고 지금 이 글을 쓰려고 하니 힘들어도 다 읽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처음 시작부터 편법이나 유혹에 빠져 이 글을 쓰려고 했다면, 그건 이 글의 목적에도 이 공모전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 일이 될 것이고 결국 부패한 글이 되어 나 자신을 돌아보는 글이 되지 않을 테니 말이다.

모든 수기에는 자신들이 마주했던 부패의 순간들과 그 순간들을 청렴으로 이겨낸 이야기가 적혀 있었다. 그리고 수기 속 주인공들은 모두 그때의 순간들을 거울삼아 청렴의 태도를 지키고 있는 듯 했다. 마치 그 순간들을 마음의 거울삼아 자신의 모습을 항상 돌아보려는 것처럼 보였다. 그래서일까. 나는 이들의 수기를 거울삼아 내 자신을 살펴보았다.

그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수기의 주인공들처럼 깨끗하면 좋았을 텐데, 수기에 비친 내 모습에는 청렴이라는 글자가 아닌 부패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언제부터인가 내 삶에 쌓아온 부패의 두께는 손에 쥘 수기 뭉치보다 두꺼워져 있었고, 내가 가진 청렴의 두께는 이보다 훨씬 얇아져 있었다.

글의 서두에서 썼듯, 나는 처음부터 유혹을 받았다. '굳이 모든 글을 읽을 필요는 없다.'라는 유혹이었다. 이번에는 그 유혹을 이겨내었지만 지금까지의 나는 거의 대부분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지고 말았다.

초등학교 때 어느 겨울 날, 봉어빵을 사고 낸 돈을 그대로 돌려받은 일이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숨긴 채 집으로 돌아왔었다. 이후 봉어빵을 파는 사람이 장애인이고, 돈 계산을 잘 못한다는 것을 알고는 돈을 내고 같은 금액의 거스름돈을 돌려받는 못된 짓을 계속 했었다. 그렇게 거의 매일 공짜 봉어빵을 먹었고 그 장애인 사장이 다른 곳으로 옮기고 나서야 그만둘 수 있었다.

중학교 때는 그래선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아버지의 지갑에서 계속 돈을 훔쳤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무서웠다. 이래도 되는 건가 하는 양심의 가책도 크게 느꼈다. 하지만 그러한 불안과 양심의 가책도, 이미 빠져버린 욕심과 부패의 늪에서 나를 건질 수는 없었다. 사소하고 작은 유혹은 내게 '딱 한번만'이라는 주문을 걸었고 나는 그 주문에 걸려 매번 같은 짓을 반복했다. 그리고 시간이 한참 흘러서야 도박을 멈출 수 있었다. 참 오랜 시간이 걸렸다.

이후에도 나의 부패는 끊임없이 이어졌다. 나이가 차고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면서 정직보다는 친분을 내세우는 일이 있었고, 남에게 정보를 주면 내가 경쟁에서 밀릴까봐 일부러 모른 척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내가 필요로 하는 걸 친분을 내세우며 요구했었다.

그러나 거짓이라는 가면을 쓴 친분은 돌고 돌아 내게 오히려 독이 되었다. 그러지 말걸 하는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랴곤 그저 나의 치부를 부끄럽게 여기며 창피해 하는 일 뿐이었다. 그게 너무 부끄러워 나의 치부는 정확히 쓰지도 못 한다.

하지만 확실히 쓸 수 있는 건 성공을 위해 부패에 발을 디디면 결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안타까운 건 그런 발걸음을 디디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과 우리 사회가 이를 부추긴다는 사실이다.

우리 사회는 성공하려면 뇌물도 주고 청탁도 해야 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렇게 얻은 부와 명예는 납덩이를 메고 있는 듯 무겁다. 그리고 그러한 납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 넘어지게 되고, 그 때 그 동안의 부패가 한 순간에 드러난다. 뉴스에서도 이러한 이야기를 쉽게 접할 수 있다. 그걸 보며 '왜 저럴까?' 싶지만 생각해 보면 그 시작은 사소했을 것이다. 그 사소함이 쌓여 드러나는 것뿐이다. 작은 부패를 시작으로 오염이 되고, 감염되고 전염된다. 우리는 부패에 감염된 세상에 살고 있다.

하지만 다행인 건, 이 부패 역시 초기에 막으면 전염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백신은 청렴이라는 이름의 '정직과 성실'이다. 이 청렴은 주변을 건강한 전염이 가능하게 만든다. 이번에 읽은 이 모든 수기는 부패의 유혹에 정직이라는 청렴으로 초기 대응에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수기 속 주인공들이라고 하여 부패의 유혹을 받지 않은 것이 아니다. 누군가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지켜야 할 자식과 가정이 있었고, 누군가는 늦은 나이에 회사 입사라는 중대한 결정의 상황에 놓여 있었다. 어떤 의경은 이미 만연한 부패의 관습 앞에서 그것을 꼭 이어가야 하는가를 고민했고, 어떤 군인의 누나는 동생의 군 생활을 두고 고민했었다. 이들은 모두 유혹 앞에 망설였고, 그 유혹은 치명적이었다.

담당자에게 사례를 하여 대기업에 입사했다면 가정을 조금 더 수월하게 지킬 수 있었고, 회사의 면접관에게 '법을 조금 어겨서라도 당장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는 답변을 하여 쉽게 입사할 수도 있었다. 부패의 관행에 따랐다면 약간의 팁을 받으며 실적도 올리는 의경 생활을 할 수도 있었고, 조금 더 안전한 후방에서 동생이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이들은 그러한 유혹을 이겨내었다.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논리에 위배되는

청렴을 지킨 결과, 누군가는 박수를 받으며 '명예퇴직자 1호'가 되었고, 정직함을 최고로 삼은 이는 늦은 나이에든 취업 시장에서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리고 의경이 법을 지킴으로써 큰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었고, 청렴을 지키며 힘든 전방에서도 명예로운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들의 '청렴'으로써 우리가 안전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들의 참 잘한 선택으로 그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 장학금을 다른 곳에 쓰자고 말했던 교장선생님은 자신의 그러한 부끄러운 모습 속에서 교사로서의 첫 마음, 곧 '정직'을 되찾았고, 하마터면 장학금을 받지 못할 뻔했던 아이는 그 '첫 마음' 덕분에 급식을 먹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어떤 꼬마아이는 자신이 받은 배려로써 기차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꾸게 되었다.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치는 '청렴'. 부패가 만연한 이 사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청렴이라는 두 글자가 아닐까.

사회는 계속해서 성공하라고 말한다. 정직과 청렴을 지키면 성공할 수도, 편히 살아가갈 수도 없다고 말한다. 하지만 수기 속 주인공들은 이렇게 반박한다. 그러한 유혹에 한 번 빠지면 돌이킬 수 없고, 그 끝은 비참하다고. 지켜야 할 게 많아지고, 성공의 욕심이 커질수록 더더욱 청렴을 지켜야 한다고. 청렴은 습관이라고 말이다.

사소한 '딱 한번만'이라는 주문에 속아 부패의 문을 두드리고 열고 걷다보면 어느새 빠져나올 수 없는 미로에 빠진다. 그리고 신화 속 미노타우로스과 같이 부패의 괴물이 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 그때 유일하게 탈출할 수 있는 실은 바로 청렴이다.

'더 깊게 빠지기 전에 그 실을 잡고 왔던 길을 되돌아가야 한다.' 23편의 수기는 내게 이 사실을 알려주었다. 비록 내가 진 실은 많이 얇아져 있지만, 이들의 수기가 나의 실을 조금 더 질기게 만들어 주었다.

도벽에 빠져 멈출 수 없었을 때보다 훨씬 오랜 시간이 걸릴지도 모른다. 하지만 중요한 건 사소한 부분에서도 청렴을 실천하는 것이고 습관이 되는 것이다. 수기 속 주인공들처럼 나도 오늘부터 내 삶에 청렴이라는 두 글자를 던진다. 그리고 그 실을 붙잡고 천천히 되돌아가자고 다짐해 본다.